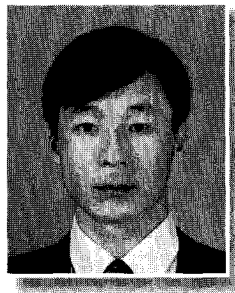


# 12월의 사슴 사양관리



김 상 우 연구사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발부

## ○ 수사슴의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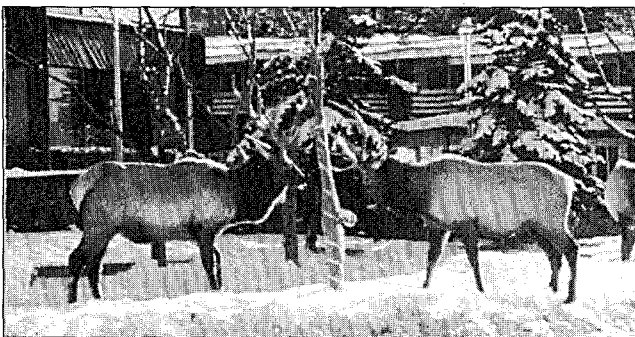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슴들은 교미가 끝난 상태가 된다. 겨울철 동안은 일반적으로 사료의 섭취량이 여름철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발정기가 시작되고부터 약 한달 사이에 사슴은 사료 섭취량의 격감으로 인하여 체중이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사료섭취량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체중감소의 대부분은 체지방의 감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이때 도축한 사슴은 지방 함량이 4%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울철의 사양관리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사슴의 사회적 서열을 우리는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가을 동안 왕위 쟁탈전에 의해 사회적인 서열이 정해지며 그들의 무리는 서열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서열이 우위에 있는 사슴은 사료의 섭취 시에도 약한 사슴의 접근을 막으며 약한 사슴은 사료의 섭취량 감소로 허약축이 되고 우위의 사슴은 비만해지는 현상을 종종 보게된다. 그러므로 겨울철 동안은 사조의 길이가 길어야하며 아주 힘이 센 사슴과 허약축은 분리하여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겨울철 수사슴은 사료섭취량 급감으로 체중이 15~20% 줄어들게 된다

## ○ 암사슴의 사양관리

암사슴의 경우는 포유기 동안은 영양소의 요구량이 높으나 이유 후부터는 분만시까지 체중의 변화 및 사료의 섭취량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암사슴들도 물론 사회적 서열이 있어 과비축과 허약축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에 암사슴들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겨울철 동안은 임신의 초기상태로 커다란 체중의 변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가 바람직하겠으나 월동용 조사료원이 같았 하나뿐일 때에는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을 과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며 조사료의 여건에 따라서 농후사료의 급여 수준을 정해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조사료



▲ 암사슴은 겨울철 임신상태이므로 다양한 조사료원 확보가 필요하다

원은 여러 가지를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모두 새로운 조사료원 개발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육성률의 사양관리

육성률의 경우는 겨울동안도 다른 계절보다는 체중의 증가율이 낮지만 계속해서 증체를 하며 이듬해 뿔 성장과 번식에 대비하

여 고영양 사양을 해야한다.

사슴의 성성숙이 보통 16개월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시기에 적정체중에 도달해야만 번식률이 높고 적정체중에 도달 못할 시에는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태기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수컷 육성률의 경우는 일생에 한번밖에 자라지 않는 육경과 첫뿔의 발생시기가 되므로 겨울동안의 육성률 관리는 일생 동안의 뿔 성장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발육은 골격, 근육, 지방의 순으로 발육이 진행되며 육성률의 시기는 골격과 근육의 발달 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시기에는 골격과 근육의 발달을 위해 에너지원 보다도 단백질의 요구량이 많을 때이므로 성록에 사용하는 농후사료 보다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농후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료의 총 섭취량은 성록보다 적지만 단위체중당 사료섭취량은 육성률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일반관리

사슴의 발정기는 12월 이후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늦새끼의 분만은 다음해 또 늦새끼의 분만을 초래할 수가 있고 늦게 태어난 자육 역시 다음해 번식계절에 성성숙에 도달하지 못하여 공태기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이 되면 종목을

분리하여 늦새끼의 분만을 막고, 종록 또한 교미로 인해 소실된 체력을 보충해 주어야 다음 봄에 녹용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무리들과 함께 합사하면 다시 사회적 서열을 위해 투쟁을 하므로 종록은 따로 낙각이 될 때까지 분리하여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록에서 제외된 수 사슴들은 사육장이 넓은 곳에 합사시켜 투쟁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준다. 또 겨울철뿐만 아니라 사슴은 채식습성 중 사료의 30~40% 정도를 야간에 섭취하는 야간채식의 특징이 있으므로 저녁이후 사조에 건초가 떨어져 있다면 이는 올바른 사양관리의 방

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조사료는 저녁 이후에도 충분히 급여를 한다.

월동용 사료로 사일레지를 급여하는 농가는 사슴장의 사조가 실내가 아닌 실외에 있으므로 수분이 많은 사일레지를 한번에 많이 줄 경우 일부 잔량이 얼어 이것을 섭취한 사슴에서 설사의 유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 사일레지의 급여는 조금씩 주어 한번에 다 먹고 남은 잔량이 없게 하여야 한다. 사료를 여러번 줌으로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겨울철 사일레지를 급여하는 농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의양육**

## 마취기구 공급안내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에서 마취기구를 공급중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 취 급 품 목 ◇

• 마취기구 세트 • 주사기 • 바늘

신청전화 : 02)969-6600